

갤러리 엠나인, 신진 작가 천아라 개인전 개최...내달 2일부터



(갤러리 엠나인 제공)

갤러리 엠나인(M9)은 신진 작가 천아라의 개인전 '터: Souvenir'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엠나인 신진 작가 공모전 'Jeune Artiste 2021'에 선발된 신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벨기에 왕립예술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천아라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자신의 유학 시절 경험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특히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며 느낀 이질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작품에서 다루는 '터의 이동'은 낯선 공간과 사람, 생소한 문화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단순한 불안정과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안정함에서 오는 혼란과 자신의 오감을 더욱 날카롭고 예민하게 만드는 생생함을 표현했다.

천아라 작가의 작업 대부분은 원형 캔버스 형태이다. 대표작 'Arles, France, 201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화 물감과 두꺼운 질감(마티에르)이 느껴지는 아크릴,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안료를 혼합해 드로잉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천아라 작가의 작업은 올해 신작을 비롯해 약 20점이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3월부터 롯데그룹의 온라인 전시관과 매거진을 통해서도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갤러리 엠나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갤러리 엠나인의 공간에서 천아라 작가만의 또 다른 터를 형성하고 기존 경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영토를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